



10월 지육시세는 2,100원/kg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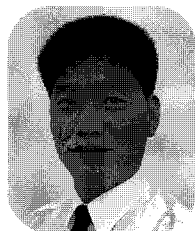
- 추석 연휴 끝나고 위축된 소비심리 작용
-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소비시장 재위축 예상

2003년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째 주의 2주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출하두수는 주간평균 37,436두로써 이전 3주간의 평균 출하두수 29,133두 대비 28.5%의 순증가를 기록하여 8월 마지막 주와 9월 첫째 주의 출하두수 증가가 돈가 약세의 첫번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매년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3~4주간 동안은 소비시장이 극도로 위축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소비 부진의 여파로 10월의 돈가는 지난 3년동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태풍 '매미'가 강타한 남부지역의 태풍 피해로 인하여 조금씩 살아나던 증권시장과 소비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의 사료 생산량의 변화를 살펴 보면 번식돈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까지 누계로 볼 때 2.8% 감소하여 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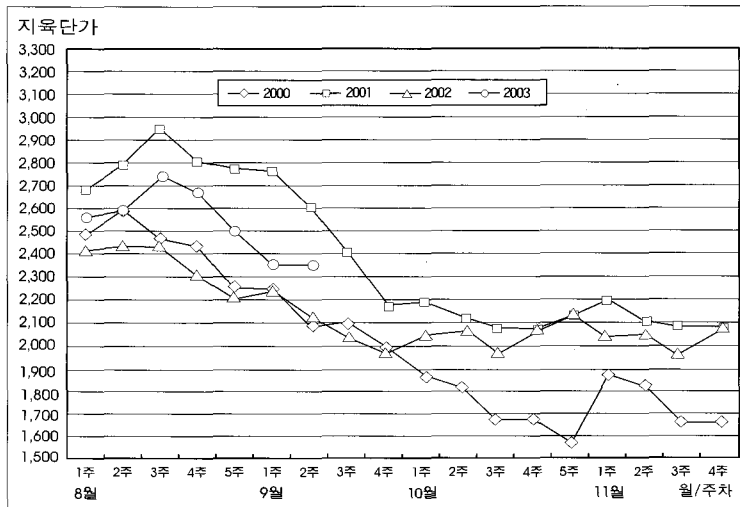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미음
모든/비육계열팀

돈 사육두수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도 출하물량이 금년도에 비하여 약간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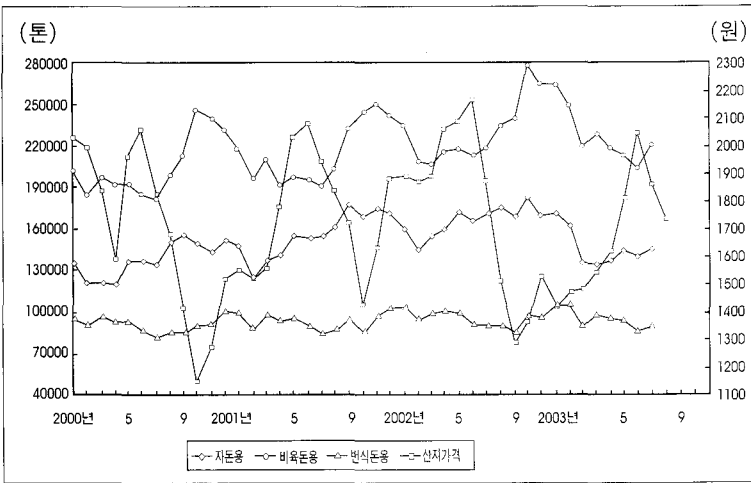
특히 자돈 사료물량의 감소는 전년동기간 대비하여 11.6% 순감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육돈 사료의 생산량은 전년동기

간 대비하여 3.3% 순증가하여 돼지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에서 값비싼 사료인 자돈 젓먹이 사료보다는 값싼 육성돈 사료의 급여기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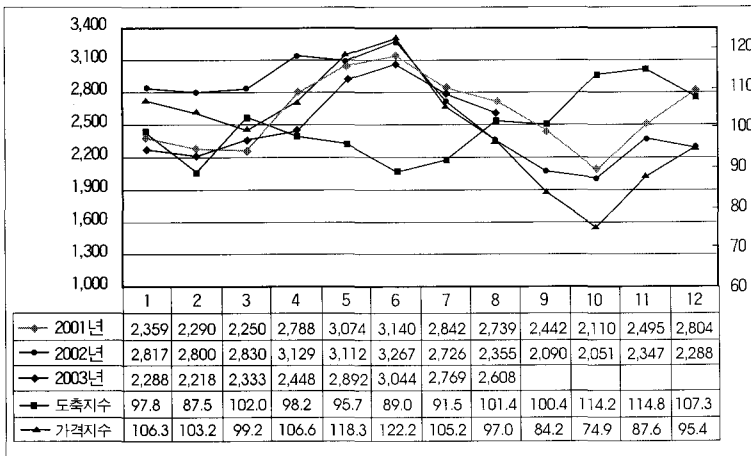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년간 전국 11개 주요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늘리면서 비육돈 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자돈과 비육돈 사료를 합하여 전년 동기간을 비교 하면 3.1% 순감소 한것으로 나타나 금년의 돼지고기 생산량 및 출하 물량이 감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 양돈의 특성상 계절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여름철에는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으로 돼지가격이 높고 가을철에는 수요감소와

공급증가로 돼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는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료 공급불량의 감소 추세로 볼 때 금년 10월의 출하두수는 전년동기에 대비하여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1차 육가공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부위인 전후지와 등심 안심의 고기를 사줄 2차 육가공 업체보다 자금력과 규모에서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력도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저돈가 시기에도 팔리지 않는 수출부위를 장기간 보관하고 유지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이 늘 기듯이 협상하기 때문에 협상에서 늘 밀리게 마련이고 보면 현재의 부위별 소비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돈가는 장기간 일본 수출시보다는 두당 1만원 이상 하락하여 양돈 농

가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가격의 장기간 하락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비수출 부위의 수출 활성화 대책 및 비축사업의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03년 10월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 단가는 약세를 보이며 2,100원을 중심으로 형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